

식량작물 신제품 종자 농촌진흥기관 통해 분양

일반농가, 2월 7일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벼, 밭작물 등 식량작물 우수 종자를 1월 중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1차 무상 분양은 지방농촌진흥기관 활용분으로,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아 1월 하순 확정된다. 1차 분양 후 남은 수량은 일반 농가에게 2차 유상 분양되며, 2차 분양은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고, 확정 통보는 2월 하순에 할 예정이다.

정기 분양 품목은 벼, 콩, 참깨, 들깨, 땅콩 조, 가장 수수, 식용피, 손가락조, 팥, 감자, 고구마 등이며, 고구마

분양의 경우 육묘 기간(40~60일)에 따른 정식 시기를 고려해 1·2차 구분 없이 별도로 진행한다.

종자 분양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 신제품 종자분양시스템에서 진행되며, 각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농진청은 해마다 새로 육성한 우량 품종이나 조숙한 보급이 필요한 품종에 대해 종자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식량작물 종자 정기 분양은 벼, 밭작물 등 하계작물과 맥류, 유채 등 동계작물로 나눠 1년에 두 번 추진하며, 연구용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수시 분

양한다

또한 농가 홍보·확산을 위한 신제품 비교 전시포와 시군에서 자체 운영하는 증식포,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무상 분양하고 지역 농업기술센터·미곡종합처리장(RPC)·제배 단지에서 외래 품종을 대체해 자체적으로 신제품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할 때 신제품 분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정명갑 기술지원과장은 "국내 육성 우수 신제품을 빠르게 보급해 외래 품종을 대체하고, 다양한 품종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도내 강소기업과 소통 통한 금융 지원 앞장”

장경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도내 농식품기업 현장 방문…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장경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새해 첫 공식일정으로 4일 농식품기업 현장 방문에 나서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행보에 나섰다.

이날 장 본부장은 진안군 부귀면에 소재한 인삼식품 제조업체인 송화수 홍삼 영농조합법인(대표 송인생)을 방문해 우수한 품질의 홍삼 가공제품과 특히 받은 증심시절을 둘러봤다.

송화수 홍삼 영농조합법인은 뿌리삼, 홍삼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지역 대표 농식품기업이다. 특히 창업주 송화수 명인은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 분야 식품명인(대한민국 식품명인 제44호)에 지정됐으며, 전통 홍삼제조법을 원형대로 계승·발전시키며 진안 홍삼의 명성을 쌓아오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은 도내 강소기업과의 소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시하는 장 본부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행보로 앞으로도 발로 뛰는 현장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경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새해 첫 공식일정으로 4일 농식품기업 현장방문에 나서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행보에 나섰다. 사진은 진안군 부귀면 송화수 홍삼 영농조합법인 내 증심시절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다.

장 본부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전북본부는 기

업역시 경쟁력 제고와 전북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포용적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예수병원 “치매환자·가족들에게 필요한 안식처”

전북 광역치매센터 개소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이 4일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예수병원은 지난해 11월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로 선정됐다.

예수병원은 이후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예수병원 주변에 센터를 마련했다.

앞으로 광역치매센터는 치매안심센터와 공립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원발굴, 홍보, 연구 등 업무 등을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한명(예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는 2019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라북도에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수행하는 기관으로, 광역치매센터와 예수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치매환자와 가족, 도민들에게 필요한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 예수병원이 4일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라고 전했다.

한편 광역치매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이번 수탁 기간으로 선정된 예수병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위탁예산으로 6억900만원(기금 70%, 도비30%)을 지원받아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주춧돌 역할을

을 할 예정이다.

김철승 예수병원장은 “광역치매센터는 전라북도내 치매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전라북도 치매의료분야의 허브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사회적기업 공간 제공 성장기회 확대

경진원, 17일까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전북 입주기업 모집

전북도경제진흥원(원장 이현웅)은 오는 17일까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전북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확인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로 경진원에서 위탁 운영 하고 있는 ‘소셜캠퍼스 온 전북’은 초기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임주 공간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으로 양질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돕고 있다. 모집 규모는 상주기업(사무 공간 제공) 9개, 등록기업 18개 총 27개 기업을 모집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협약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입주 기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입주기업 대상이 대폭 확대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졸업 기업

및 (예비)사회적경제 기업과 더불어 정부 및 지자체의 소셜벤처 인증 기업도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이현웅 원장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기회가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 및 육성한다”며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라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063-223-2503)으로 문의 가능하다.

/최대희 기자

“주거복지 이외 국민의 꿈터 만드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안찬진 신임 LH 전북본부장 취임, 핵심정책 수행 등 다짐

LH는 지난해 12월 31일 본부장급 인사를 통해, 전북지역본부장으로 안찬진 보상 기획처장을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신임 안찬진 본부장(56)은 진안출신으로 전라교과 전 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에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해 전북본부 지역협력부장 본사 판매보상기획처 보상기획단장, 본사 보상기획처장 등을 거쳤다.

안 본부장은 취임식에서 “2022년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해로 주택시장 안정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수행과 강력한 경영혁신 및 지속가능성 제고가 절실한 해”임을 당부했다.

이율러 “LH가 주거복지, 주택건설 등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국민의 일터, 꿈터, 꿈터를 함께 만드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LH전북 지역본부가 2022년에도 ESG경영전략 실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활동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해외규격인증 획득 기업당 최대 1억 지원

참여 중기 21일까지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미·중 갈등 고조 등 변화하는 수출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유럽 CE, 미국 FDA, 중국 CCC 등 481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번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비관세 장벽 애로해소와 수출시장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동시에 변화하는 수출환경을 대비한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중기협동조합 협업플랫폼 역할 발휘 노력”

전의준 신임 중기중앙회 전북본부장 부임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일자로 전의준 전북지역본부장을 임명했다.



전 본부장은 배제교와 동국대학교 독문학, 연세대 법무대학원(법학 석사)을 졸업했으며, 1996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입사해 기획예산팀장 회원지원부장 판로정책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